

“얌체 운전자 잡아달라”

전남대, 주차비 안낸 4명 경찰에 진정

캠퍼스 내 주차장을 유료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가 상습적으로 주차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얌체 운전자들을 붙잡아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는 25일 대학 진출입구에 설치된 차단장치(게이트바)를 무단통과하는 방법으로 주차비를 내지 않은 29서 XXXX호 카니발 승합차 등 차량 4대의 운전자를 붙잡아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대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가는 차량 운전자가 주차비용을 내고 차단장치를 통과하는 순간 곧바로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출구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CCTV 분석결과 이들 차량 운전자는 3회 이상 주차비를 내지 않았으며, 특히 승합차 운전자는 모두 6차례에 걸쳐 모두 4만7천여원의 주차비를 내지 않았다. 전남대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주의 신원 파악을 부탁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알려주지 않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며 “차량 운전자가 드러나면 미납요금 받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대에는 모두 2천350명의 주차공간이 있으며, 하루 평균 7천여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학교 측은 운전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지난 3월 1억원을 들여 정문·후문·공대·농대의 출입구 4곳에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차단장치를 오르내리는 최신 장비를 설치·운영중이다.

일반인에게는 30분간 무료, 이후 30분은 600원의 요금을 받으며 1시간이 지나면 10분에 200원씩 받는다. 하루 최고 한도는 1만원이다. 교직원·장거리 통학생·무거운 약기를 소지한 예술대학생 등의 경우 매달 5천원의 관리비만 내면 주차가 가능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인정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위한”

현재 결정... 시각장애인 반발 클 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에 정당하다고 해도 일반인의 특정 직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광주지법, 트랜스젠더 7명 성별 정정심리 현장

“몸도 마음도 여자라서 행복해요”

주민번호만 ‘1’ 정신적 고통 호소

“대법원 결정이후 정정여부 판단”

“성전환 수술이 죽을 것처럼 아팠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25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3층 가정지원 심문실에서는 흥미로운 심리가 있었다. S(27)씨 등 7명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성별 변경) 및 개명 신청에 대한 비공개 심리가 열린 것이다.

이날 심리에서 S씨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 정체성에 힘들어 했다”면서 “몸과 마음은 완벽한 여자이지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때문에 그동안 너무 고민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호적 정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2년 4월 국내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L(29)씨는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도 있다.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까지 한 L씨는 “어린 시절부터 소꿉놀이와 인형놀이, 고무줄, 공기볼

이 등 여성적인 행동을 해 왔다”며 “남성과의 성생활도 문제없고, 여성으로서 남보다 더 열심히 생활하고자 호적정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지법에 호적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는 11명. 이날 심리에 나온 7명의 트랜스젠더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해 왔고, 주변으로부터 남자가 ‘여자 같다’는 놀림을 받아오며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날 신청인들에 대해 ▲여자라는 성 정체성을 확립한 때 ▲성전환 수술 여부와 시기 ▲성전환 수술이

후 생활 ▲수술 뒤 정체성을 찾았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또 이들의 동의 아래 신체검사도 실시했다.

광주지법 이창한 가정지원장은 “신청인들이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데 호적이 남자로 돼 있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대법원 결정 이후 이를 참고해 호적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는 1·2심에서 호적정정신청이 불허된 성전환자 3명의 신청사건이 계류 중이다. 그동안 1심

▲트랜스젠더(Transgender)=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갖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性)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으로, 동성애자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의학적으로는 ‘성적 정체성 장애의 형태’로 불린다.

과 2심에서 다뤄진 호적 성별정정 신청 사건에서는 인간의 성은 태아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남성 xy, 여성 xx)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성 염색체론’과 생식 능력이 없더라도 신체 외형은 물론 심리적·정신적인 성, 주관적·개인적 성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충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풍권 침해 5·31선거 현수막 철거”

광주지방법원

무분별 현수막 ‘제동’

적절한 절차 없이 다른 후보의 현수막을 가리거나, 세입자간 합의 없이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은 세입자의 일조권(日照權)과 통풍권(通風權)을 해치기 때문에 철거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5일 자신의 선거현수막이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에 의해 가려졌다며 광주시의원 후보 주모(38)씨가 광주

동구 기초의원 후보 범모(43)씨를 상대로 낸 현수막 철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씨가 이미 게시돼 있던 주씨의 현수막 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현수막을 ‘걸치기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의 효용을 해친 행위”라며 주

씨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은 반대로 범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는 범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은 임차인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범씨의 일조권과 통풍권이 손해를 입었다”며 주씨에게도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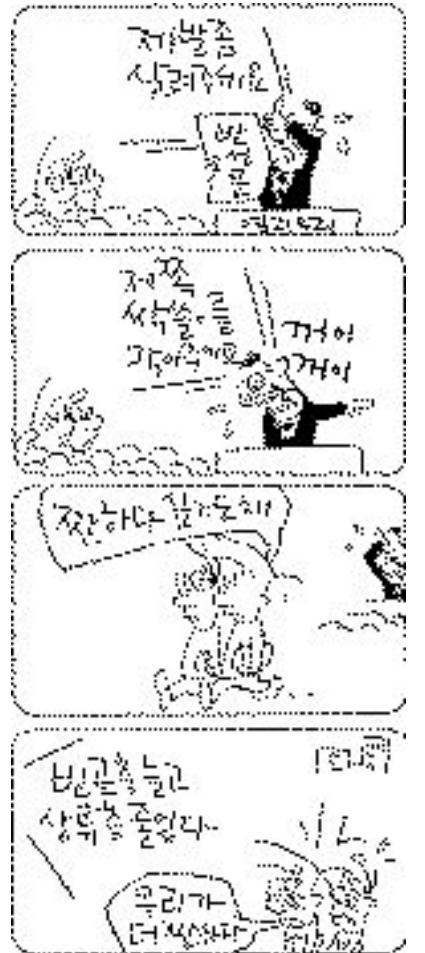
법원의 이번 결정은 ▲건물 외벽의 경우 임차인들의 공유임에 따라 독점 사용권이 없다는 점 ▲일조권과 통풍권에 의해 임차자들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차자들의 양해와 합의 없이 게시된 대형 현수막은 임차자들의 권리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철거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주씨는 지난달 민주당 시의원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범씨가 지난 2일 자신의 선거 사무실 위층을 임차한 뒤 예고도 없이 현수막을 걸치기 게시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범씨도 ‘주씨가 3층까지 현수막을 내건 것은 부당하다’며 맞소송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31 선거일 유급휴무 실시하라” ‘민주노동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희성)는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 및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일 비정규직에게도 유급휴무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와 전남에는 20여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고 민주노동당은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침 (6838) 김동우



연예자 동침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4부 문의 (062)366-4220

다방 여종업원 집단 성폭행 광주 동부경찰은 25일 차배달은 10대 다방 여종업원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배모(2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주형기자 jhlim@

채팅녀에 의사라고 속여 돈 빌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의사라고 거짓 말을 해 돈을 빌린 화사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간 여성을 잡도 혐의로 신고.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4·서울)씨는 “25일 새벽 1시께 이모(여·39·광주시 서구 화정동)씨가 갑자기 내 렉스턴 차량을 훔쳐갔다”며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 19일 인터넷에서 알게된 김씨가 미국에서 의대를 나와 강원도 모 보건소 의사로 근무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479만원을 빌려 갔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면서 “돈을 갚을 때까지 차를 갖고 있는 것이지 훔친 것은 아니다”고 진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신동정제약주식회사

버미플루 1알로

“환히 웃는 우리가족”

1회 1정 먹는 구충제 - 버미플루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번에 없애줍니다.

복통, 항문주위의 가려움,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은 인체의 장내에서 피를 빼앗아 가며, 식욕부진, 위통, 실사, 빈혈의 원인입니다. 1회 1정으로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구충제 - 버미플루 이제부터 기생충으로 인한 가족의 질병은 버미플루로 지켜주세요.

1회 1정 복용하는 구충제 버미플루 정

바라보는 것은 사랑, 채워주는 것은 미소